

무안, 포스트코로나 시대 위기대응 방안 마련 '총력'

군수 주재 포스트코로나 위기대응 실과소 실행보고회 개최 김 산 군수, 한국판 뉴딜 연계 '무안형 뉴딜사업' 발걸 당부

무안군(군수 김 산)은 지난달 29일 김 산 군수 주재하에 포스트코로나 시대 향후 정부 정책방향에 대응하기 위한 '포스트코로나 위기대응 실과소 실행계획 보고회'를 개최해 정부의 3차 추경예산(안)에 담긴 '한국판 뉴딜' 정책의 내용과 향후 정부 정책 방향성에 대해 공유하고, 실과소별로 발걸한 대응 전략 실행계획을 확정했다.

이 날 보고된 사업은 신규사업 29건을 포함한 총 58건으로 일자리-경제분야 10건, 일반행정분야 11건, 농수산 분야 15건, 보건복지분야 7건, 관광분야 6건, 산림환경분야 5건, 정보통신 분야 3건이며, 소요 예산은 국비 447억 원, 도비 56억 원, 군비 490억 원 등 총 995억 원에 이른다.

발걸된 주요 사업은 비대면 문화 확산

에 대응한 영상회의 시스템 구축, 공공 와이파이 추가 확대, 소상공인 스마트시범상가 조성, 중소기업 및 농수산물 온라인 판촉지원, VR/AR 체험시설 확대 등의 비대면산업 육성사업과 소규모 개별 관광 확대라는 새로운 관광트렌드에 대응하는 화산백련지 야간경관명소 구축, 무안 모두누리 숲 조성과 같은 그린 뉴딜사업 등이다.

이 밖에 코로나19의 2차 대유행에 대비한 대응역량 강화 차원의 대규모 방역물품 비축과 관내 의료기관 음압병실 및 설비 확충 등이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김 산 군수는 보고회를 마무리하면서 "정부의 한국판 뉴딜 사업은 1930년대 세계 경제대공황을 슬기롭게 극복한 미국의 뉴딜 정책처럼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가는 일대 전환을 일으킬 수 있는 사업이다."라며, "정부가 포스트코로나 시대 사회·경제 구조의 혁신적인 재편에 중점을 두고 펼치는 사업인 만큼 이에 대응해 우리 군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창의적이고 과감한 '무안형 뉴딜' 사업을 발걸하는 데 더 고민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앞으로는 실과소의 적극적인 국도비 지원사업 발걸 노력이 더욱 절실하

다. 추후 한국판 뉴딜에 대한 정부의 구체적인 세부 계획들이 발표되면 이와 연계한 추가적인 대응계획을 수립하고 정부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대비해 주기 바란다."라며 전 직원들의 역량을 결집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군은 포스트코로나 시대 위기대응을 위해 지난달 말 T/F를 구성하고, 지난달 15일 '무안군정책자문단' 정기 회의에서 분야별 전문가의 정책 제언을 청취하는 등 군 실정에 맞는 위기대응 방안 마련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무안=고민재 기자 mjgo@

신안, 섬 원추리 축제 취소 결정

신안군은 민선7기 중점사업인 '세계적 꽃피는 1004섬 조성'을 위해 홍도에서 '홍도원추리(Hemerocallis hongdoensis)' 라는 학명을 가지고 있는 홍도원추리를 주제로 '섬 원추리 축제'를 지난 2019년부터 개최했다.

올해에도 23일부터 8월2일까지 '제2회 섬 원추리 축제'를 위해 해변 경관채색과 환경정비를 실시하고 관광객을 맞이할 준비와 노력을 해왔으나, 코로나19 재확산 여파로 열리지 않게 됐다.

섬 원추리축제 추진위원회(최성진)은 코로나19 재확산 가능성과 외부 관광객 유입에 따른 방역수칙 이행 가능성을 검토했다. 그 결과 축제를 취소해 정부의 생활방역 기조에 적극 동참하고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취소 결정을 내렸다.

신안군수(박우량)는 "축제 준비를 위해 노력해준 홍도 주민들과 관계자들에게 죄송한 마음을 전하며, 아쉬움은 있지만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결정한 일인만큼 양해를 바란다."고 말했다.

본래 홍도는 자연경관이 뛰어나 매년 평균 10만여 명의 관광객이 찾아오고 있으나, 작년에는 섬 원추리축제가 처음 열린 이후 12만5천여 명이 관광객이 찾아왔다.

/신안=박성태 기자 tst5866@

목포시,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시간 주간으로 변경

목포시는 그동안 야간에 수거했던 음식물류폐기물을 7월 1일부터는 아침 6시부터 오후 16시까지 수집·운반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전통시장이나 상가지역 영업, 출퇴근시간대 혼잡 등으로 인한 주민불편 방지를 위해 사실상 야간에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해 왔으나 야간작업으로 인한 환경미화원 사망·안전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는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지침'을 권고하고 있으며, 목포시도 환경미화원의 안전을 위해 작업시간을 주간으로 전환하게 됐다.

시는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시간 변경을 위해 지난 26일 까지 2주간의 시범 운영을 거쳐 주간작업 시간대로의 변경을 확정하고, 전통시장 등이 우선 수거될 수 있도록 작업구역 순서도 조정했다.

권별별 수거요일은 변동이 없으며 수거 시간만 변경됐으므로 시민들은 평소와 마찬가지로 배출일 일몰 후 음식물쓰레기를 내놓으면 된다.

/목포=박성태 기자 tst5866@

영암,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

17일까지 거주지 읍·면 사무소에 서류 갖춰 신청

영암군(군수 전동평)은 오는 17일까지 2020년 하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2020년 하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은 귀농인 및 재촌 비농업인이 안정적으로 농업·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농업창업 및 주거공간 준비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신청 대상은 사업신청년도 기준 만 65세 이하(1954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인 세대주로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고, 가족과 함께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계획 중이며, 전입일을 기준으로 이주 직전에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귀농인과 농촌지역에 거주하면서 최근 5년 이

내 농업에 종사하지 않고, 사업신청일 현재 농촌지역에 주민등록이 1년 이상 돼있는 재촌 비농업인으로 100시간이상의 귀농·영농 교육 이수실적 있어야 한다.

대출한도는 농업창업자금 3억원 한도 이내, 주택 구입·신축 및 증·개축 자금은 7천500만원 한도 이내에서 대상자의 사업실적과 대출취급기관의 대상자에 대한 신용도 및 담보평가 등 대출심사 결과에 의해 결정된다. 대출 금리는 연 2%(또는 변동금리 선택 가능)로 5년 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상환으로 지원한다.

사업을 희망하는 귀농인은 관련서류를 갖춰 거주지 읍·면사무소 산업팀에 제출하면 된다.

/영암=김희선 기자 hskim@



진군 일대에서 강진군문화관광재단의 야간 관광프로그램 '나이트 드림'이 지난달 27일 진행됐다.

/강진군 제공

강진, 야간 관광프로그램 '나이트 드림' 시작

첫회 150여 명 참가,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 진행

강진군문화관광재단(이사장 이승욱 강진군수)의 야간 관광프로그램 '나이트 드림'이 지난달 27일 첫선을 보였다.

지역의 아름다운 야경자원과 공연 등을 연계해 관광객 체류를 유도하는 '나이트 드림'은 올해 한국관광공사 선정 야간관광 100선과, 7월에 가볼만 한 야간관광지로 선정된 강진의 대표적인 야간관광 프로그램이다.

이번 첫 회에는 약 150여 명이 참가해 가우도 트레킹, 사의재 '조만간 프로젝트' 및 마당극 '땡큐 주모' 공연 관람, 세계모

란공원 시 낭송 및 음악공연, 경품 추첨 등 다채롭고 감성적인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특히, 치맥과 함께하는 세계모란공원 야간 피크닉 공연은 시 낭송, 하모니카, 우쿨렐레, 포크송 등의 연주로 구성됐으며 공연 모두가 지역민들의 참여와 재능 기부로 진행돼 더욱 의미가 있었다.

강진군문화관광재단 임재성 마케팅팀장은 "한국관광공사 추천 야간관광 100선에 당당히 선정된 나이트 드림은 외부 관광객 체류 연장을 통한 지역 경기 활성화

에 목적을 두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걱정이 많았지만, 참가자 전원 열 체크 및 의무 마스크 착용, 생활 속 거리 두기 버스 탑승 등을 통해서 무탈하게 첫 회를 진행할 수 있었다. 앞으로도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지역민 동참 공연 등을 통해서 더 나은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진, 나이트 드림'은 앞으로 10월까지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에 진행된다. 신청은 강진군문화관광재단 홈페이지(<http://www.gangjin.or.kr>) 또는 전화(061-434-7999)를 통해 가능하다.

/해남=김대수 기자 abc6789@

함평군 신광면, 경로당 화장실 매트 설치

함평군 신광면(면장 이장근)은 지난달 29일과 30일 이틀간 관내 경로당 32개소에 노인들의 낙상사고 예방을 위해 '화장실 미끄럼방지 매트'를 설치했다.

이 사업은 신광면 지역특화사업으로 면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의 250만 원의 기금마련을 통해 이루어졌다.

협의체와 복지기동대, 복지이장단이 곳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봉사활동에 참여해 노인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해 구슬땀을 흘렸다. 특히, 다가오는 장마

철을 대비하여 노인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경로당 화장실에 매트를 설치함으로써 노인들이 일상생활에서 오는 안전함으로써 편안한 시설이용을 위해 생활밀착형 사업으로 주민들의 호평을 받았다.

장영식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은 "한마음 한 뜻으로 봉사에 참여해 주신 봉사자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며, 앞으로도 민관협력으로 소통하는 신광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함평=박동주 기자 df3141@

전국최고 분양대행 선두주자

(주)하광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번영로 53, 4층 (치평동)